

Surgical extrusion in maxillary anterior area

홍지연*, 채경준, 정의원, 김창성, 최성호, 조규성, 채중규, 김종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연구배경

외상에 의한 파절, 치아 우식 등으로 root rest 가 형성된 경우 보철을 위한 임상적 치근 확장술이 요구되고, 이를 위한 방법에는 골절제술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apically positioned flap surgery, 교정력을 이용한 forced eruption, surgical extrusion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발전됨에 따라 치아 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Surgical extrusion 된 치아의 치유는 탈구된 치아를 발치와에 재식하는 경우와 이론적 배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치주인대 재생에 의한 repair, ankylosis, root resorption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구강 외에서 존재하던 시간, 보관된 media의 종류, 치근면과 이물질의 접촉 여부 및 이물질의 종류, 재식 후 고정 등이 치유 양상에 관여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Surgical extrusion 의 경우, 구강 외의 환경, 이물질 등과 접하는 시간이 거의 없고, 치주인대에 tearing 외에 외상이 거의 가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심미성이 요구되는 전치부에 있어, 골절제술, apically positioned flap surgery 등이 동반될 경우 보철의 치관은 연장되어 심미성이 감소되며, 교정력을 이용한 forced eruption 은 치료기간을 장기화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surgical extrusion 의 경우 치료기간이 단축되면서, 필요 시 협측과 구개측의 위치를 변경하여 치근의 지지양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임플란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saucerization 에 의한 변연골의 소실과 연이은 치간유두의 상실이 치주인대가 유지되는 surgical extrusion에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심미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및 재료

연세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상악 전치부에서 외상에 의한 파절, 심한 치아 우식 등으로 인하여 root rest 가 형성되었으나, 치주질환에는 이환 되지 않은 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고, 상기 조건의 증례를 임상적, 방사선학적으로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정출된 후 치근단 부위의 치조골 재생과, 변연골의 유지 상태가 관찰되었으며, 치근의 일부에서 흡수가 일어났으나, 별다른 임상 증상의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Surgical extrusion은 심미성을 요하는 상악 전치부에서 치관연장술 및 발치와 이에 따른 임플란트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예지성 높은 치료 술식으로 이용될 수 있다.